

고대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묘제와 장제*

권오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최영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베트남 중부의 사 흰 문화는 대형의 전용 옹관을 매장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 학계의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특히 영산강유역의 대형 옹관과 사 흰 옹관을 비교하는 작업이 최근에 정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작업 자체로도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 흰 문화와 같은 시기에 공존하였던 동남아시아 각지의 고대 묘제와 장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북부와 중국 남부를 무대로 발전한 동 손 문화는 사 흰 문화와는 상이한 묘제와 장제를 발전시켰으나 일부 상호 교류한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라오스 고원지대의 돌항아리는 재질이 흙에서 돌로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관념은 사 흰 옹관과 유사하다. 반면 태국이나 캄보디아 지역에서는 토광묘나 목관묘가 주류 묘제일 뿐 옹관묘는 유소아용에 국한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묘제와 장제를 발전시킨 동남아시아 각지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영산강유역 옹관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작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동 손 문화, 사 흰 문화, 옹관, 목관, 돌항아리, 홍옥수, 유리구슬

I. 머리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와 통상 분야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식은 답보상태다. 특히 선사와 고대의 역사, 문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ODA 사업의 형태로 불탑, 사원 등에 대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미술사와 건축학 분야에서는 작으나마 변화의 조짐이 보여 희망적이다.

한국사에서는 해상실크로드의 형성, 고대 국가 형성 과정 비교 등의 목적을

* 본 논문은 2019년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재)대한문화재연구원의 『대형옹관 장송의례 복원 학술연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띠고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권오영, 2019). 고고학 분야에서는 유리구슬과 홍옥수로 만든 장신구가 원거리 유통되는 과정,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대형 전용 옹관과 베트남 중부 사 흰(Sa Huynh) 문화 옹관과의 비교 등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특히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옹관문화를 바탕으로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를 이해하고 주변국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베트남의 옹관묘에 대한 현지 조사와 자료 집성을 수행하였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또한, 베트남 옹관묘에 나타난 장송의례적인 요소를 검토하고, 영산강유역의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최미숙, 2020).

그 결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 흰 문화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의 선사-고대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 흰 문화의 옹관이 매우 특징적이고 영산강유역 옹관과 비교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 흰 옹관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묘제와 장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사 흰 문화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문화 이외에도 수많은 지역문화가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발전하였으며 각기 특징적인 묘제와 장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이해 없이 사 흰 옹관과 영산강유역 옹관을 직접 비교하는 작업은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철기시대-고대에 해당하는 매장유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 글의 목적은 영산강유역 옹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사 흰 문화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묘제와 장제를 개괄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시야에 넣은 광역 네트워크 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II. 동 손(Dong Son)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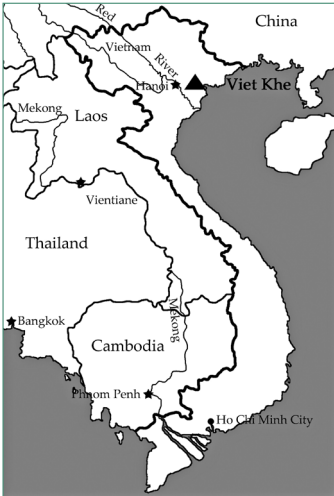
동 손 문화는 홍강(紅江) 유역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발전한 철기 문화로서, 현재의 베트남 북부와 중국 남부를 무대로 발전하였다. 1950년대 동 손(Dong Son) 유역의 발굴을 통해 이 문화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청동 북, 즉 동고(銅鼓)의 사용이 이 문화의 특징이다. 동 손 문화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500

년에서 기원후 300년 무렵에 해당하므로, 베트남 중·남부의 사 환 문화와 거의 동시기에 해당한다. 동 손 유적이 처음 발견된 이래, 인근지역에서 많은 수의 동 손 문화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대다수는 분묘 유적이다(Carter, 2013: 51). 그중에서도 비엣 케(Viet Khe), 차우 칸(Chau Can) 유적이 대표적이다(Higham, 2002: 173).

동 손 문화의 묘제는 통나무로 만든 배 모양의 목관묘, 혹은 선박묘(boat-shaped coffins)를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인 목관묘는 팡 닌(Quang Ninh), 하이 풍(Hai Phong), 하이 즈엉(Hai Duong), 흥 옌(Hung Yen), 하노이(Hanoi), 하 띠이(Ha Tay), 그리고 하남(Ha Nam) 성(省) 지방의 충적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배 모양 목관묘는 특히 하 띠이 성과 하 남 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이 두 성은 홍강과 락(Thic) 강 사이를 흐르는 누에(Nhue) 강 인근에 입지하고 있다. 모든 목관묘가 강이나 작은 하천, 바다 등 물과 가까운 곳에 분포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며(Liem, 2005), 목관의 형태나 입지를 보아 동 손 문화의 장송의례에서 물과 하천, 바다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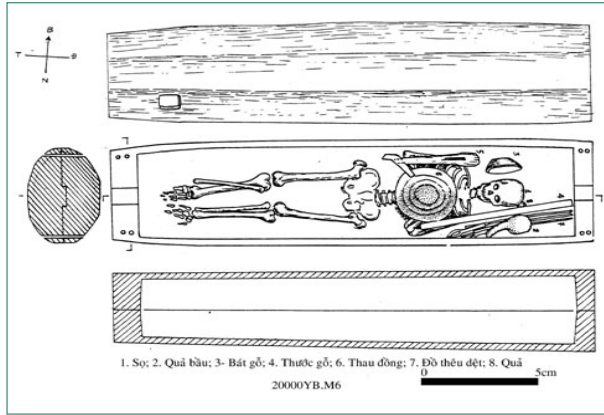
목관 안에 매납된 시신은 모두 곧게 편 신전장(伸展葬)의 형태로 안치되었는데, 팔을 몸 옆에 나란히 한 경우도 있고, 흉부나 복부에서 교차시킨 경우도 있다. 시신에 옷을 입힌 상태로 안치한 사례도 있으며, 쑤언 라(Xuan La)나 옌 박(Yen Bac) 유적에서처럼 줄로 시신을 단단하게 묶어 매장한 사례도 확인된다. 부장품은 대부분 시신의 머리, 몸통, 발치 쪽에 놓여 있다. 창, 화살촉, 검 등의 청동제 무기류는 날 부분이 머리 쪽을 향해 시신과 평행한 상태로 놓인 채 출토되었다. 이러한 목관묘는 동 손 문화기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Liem, 2005).

비엣 케(Viet Khe) 유적은 하이 풍 시의 뚜이 응우옌(Thuy Nguyen) 인근에 위치한다. 1961년에 목관 5기가 발굴되었는데, 길이가 긴 것은 4.5m에 달한다. 그 중 M2호 목관은 강에 인접한 곳에 입지한다. 통나무를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고, 판자로 뚜껑을 만들어 덮었다. M2호에서는 인골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장품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청동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각종 용기, 동고, 동종(銅鐘), 검, 창, 전투용 도끼, 화살촉 등의 무기류, 그리고 도끼, 끌, 도자 등의 공구류가 출토되었다. 청동기류 외에도 철기, 목기, 숫돌, 직물류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Wei et al., 2014: 78-79).



출처: Wei et al.(2014).

그림 1 비엠허 유적의 위치



출처: Vietnam National Museum of History.

그림 2 엔 박 유적 출토 배모양 목관

차우 칸(Chau Can) 유적은 하 띠이 성의 푸 쉐이엔(Phu Xuyen)에 위치하고 있는데, 1974년과 2000년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10기(1974년 8기, 2000년 2기)의 배 모양 목관이 발굴되었다. 비엠허 유적보다는 목관의 크기가 작고 부장품도 적은 편이다. 유기질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나무로 만든 무기류 손잡이와 용기, 식물류가 출토되었다.

동 손 문화의 일반적인 묘제는 토광묘, 통나무로 만든 목관묘이지만, 옹관묘가 사용된 지역도 있다. 주로 마(Ma) 강과 까(Ca) 강 유역의 토광묘 주변에서 냄비형태 옹관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옹관은 대부분 크기가 작고, 실생활에 사용하는 토기와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일부 옹관에서는 어린아이의 인골이 출토되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46-47). 성인이 매장된 토광묘나 목관묘 주위에 유소아가 묻힌 옹관이 배치되는 양상은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동 손 문화의 옹관묘는 대형의 전용 옹관이 아니란 점, 그리고 옹관의 매장 방식에서 직치(直置)와 횡치(橫置)가 모두 나타난다는 점이 뒤에서 설명할 사현 문화의 옹관묘와 다르다.

규모가 매우 큰 랑 박(Lang Vac) 유적은 응예 안(Nughe An) 성 까강 유역에 위치

하는데, 총 391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토광묘가 주류를 점하고 있으며, 냄비형 옹관이 80여 기 이상 출토되었다.

III. 사 훤(Sa Huynh) 문화

1. 사 훤 문화의 단계와 특징

사 훤 문화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사이에, 금속 문화를 기반으로 현재의 베트남 중부를 무대로 발전한 문화다. 베트남 북부와 중국 광둥(廣東), 광시(廣西)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동 손 문화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원사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다. 동 손 문화와 사 훤 문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되는데, 가장 상징적인 것은 동 손의 동고, 사 훤의 옹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 훤 문화의 옹관에서는 유리, 마노, 홍옥수 등으로 제작한 장신구가 부장되는 경우가 많다(Lam Thi, 2011: 5).

사 훤 문화는 1909년 프랑스 학자들이 팡 응아이(Quang Ngai) 성의 해안가에 위치한 사 훤(Sa Huynh) 유적에서 옹관묘를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Solheim, 1959: 99).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20세기 후반 이후 베트남 중남부의 사 훤 문화 유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100여 군데에 달하는 사 훤 문화 유적이 조사되었다.

사 훤 문화의 공간적 분포 범위는 베트남 중부의 하 띨(Ha Tinh) 성부터 남쪽으로는 닝 투언(Ninh Thuan) 성까지 광범위하다(부이 반 리엠, 2013: 150).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 훤 문화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의 연구자인 Lam Thi My Dzung(2011)은 뚜아 띨옌-후에(Thua Thien-Hue) 성부터 동 나이(Dong Nai) 삼각주까지를 모두 사 훤 문화의 공간적 범위로 파악하였다. 반면 일본 연구자인 야마가타 마리코(Yamagata Mariko, 2006)는 베트남 중부의 후에(Hue, 뚜아 띨옌-후에 성의 省都)부터 나 쩡(Nha Trang) 남부의 캄 라인(Cam Ranh) 만까지 분포한다고 보아, 사 훤 문화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이해한다. 사 훤 문화에 해당하는 유적들은 주로 해안이나 강

가의 사구에 분포하는데, 간혹 내륙의 산간 지역이나 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규모가 큰 유적들은 대부분 팡 남(Quang Nam) 성과 팡 응아이 성에 있는데, 특히 호이 안(Hoi An) 연안이나 투 본(Thu Bon) 강 유역의 넓은 충적 평야에서 확인되었다(부이 반 리엠, 2013: 150).

사 흰 문화의 분포 양상에 대해서는 두 개의 지역권(북부와 남부)으로 나누어 이해하기도 한다(Lam Thi, 2011: 4-7). Lam Thi My Dzung은 사 흰 문화의 공간적 범위를 뚜아 띠엔-후에 성부터 동 나이 삼각주까지로 보고, 이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었다. 북부 사 흰 문화의 경우 팡 찌(Quang Tri) 성, 뚜아 띠엔-후에 성, 팡 남 성, 팡 응아이 성, 빈 딘(Binh Dinh) 성과 다 낭(Da Nang) 등의 지역을 포함하며, 대형 원통형 옹관이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남부 사 흰 문화권에서는 옹관묘만이 아니라 토광묘도 사용되었으며, 옹관의 형태가 필리핀의 타봉(Tabon)이나 태국의 사무이(Samui) 섬에서 확인되는 것과 강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사 흰 문화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Lam Thi My Dzung(2011: 6-7)이 세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전기에 해당하는 Phase I은 옹관묘와 토광묘가 공존하며, 청동제·철제 유물, 소량의 구슬을 부장하였다. 북부 베트남에서 발전한 동 손 문화와의 관련성이 큰데, 꼬 마 보이(Go Ma Voi), 빈 짜우(Binh Chau) II, 딱 빅(Thach Bich), 꼬 퀘(Go Que) 유적 등이 이 시기에 속한다. 사 흰 문화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Phase II가 되면 구연부가 외반한 원통형 옹관이 널리 사용된다. 부장품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철기류가 증가하며, 홍옥수, 유리제 구슬이나 귀걸이, 금제 장신구가 등장한다. 또 청동제 병이나 한(漢)의 동경(銅鏡)과 같이 외부에서 수입된 물품들이 추가된다. 이전 단계와 비교하면 부장 토기의 장식성이 약화되며, 부장 유물 중 중국(西漢 말기부터 東漢 초기)과 강한 관련성을 갖는 물건들이 등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꼬 두아(Go Dua), 빈 옌(Binh Yen) pit 2, 안 방(An Bang), 라이 응이(Lai Nghi), 다이 란(Dai Lanh) 유적이 대표적이다. Phase III은 사 흰 문화의 마지막 단계로, 라이 응이, 허우 싸(Hau Xa) II, 호아 디엠(Hoa Diem) 유적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묘제의 다양성이 다시 증대되는 시기이며 부장품에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도서지역과의 교역을 보여 주는 것들이 증가한다.

한편 야마가타 마리코(Yamagata and Matsumura, 2017: 338)는 옹관의 형태, 토기 장식의 다양성, 금속 유물의 수량과 종류, 그리고 부장된 구슬의 수량을 기준으로

표 1 야마가타 마리코의 사 흰 문화 분류안

	Phase I	Phase II
옹관의 형태	계란형	원통형
토기 장식의 다양성	다양	단순
금속 유물의 수량과 종류	청동제 유물 중심	철기 유물 중심, 소량의 청동 거울과 그릇 포함
구슬의 수량		Phase I에 비해 증가
주요 유적	Binh Yen H(trench)1, Thach Binh, Go Ma Voi.	Binh Yen H2, Go Dua.

로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표 1).

2단계 설을 따르던 3단계 설을 따르던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옹관의 형태가 난형에서 원통형으로 변화하며, 후기로 갈수록 철기와 구슬류의 부장이 증가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세품이 등장하는 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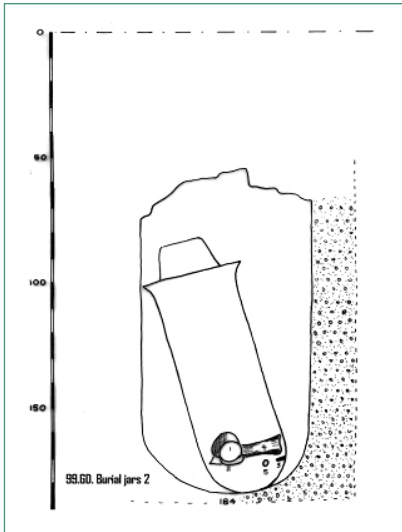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서남부의 옹관묘 문화권에서 보이는 현상과 일치한다. 영산강유역 옹관묘의 형태가 계란 모양에서 원통형으로 변하는 점, 인도-태평양 유리구슬의 부장량이 늘어나는 점, 중국제 도자기와 백제 중앙에서 유입된 귀금속 장신구가 증가하는 점 등이 공통적이다.

2. 사 흰 문화기 옹관묘의 장송의례

1) 옹관의 형태와 매장 방식

사 흰 문화기에는 시기,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옹관이 사용되었고, 일상용 소형 냄비나 토기를 옹관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사 흰 문화의 특징인 대형 전용 옹관은 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크게 계란형(난형)과 원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대형의 원통형 옹관이 사 흰 문화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는 보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계란형의 경우 전(前) 사 흰 문화인 롱 탄(Long Thanh) 문화기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사 흰 문화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다(Yamagata and Matsumura, 2017). 옹관의 높이는 평균 60~70cm로, 원통형 옹관보다 작다. 반면 원통형 옹관은 일



출처: Lam Thi My Dzung(2009).

그림 3 꼬 두아 유적 출토 2중 옹관

반적으로 구연부가 나팔형으로 외반하며, 동체부는 수직에 가까운 원통형이고 저부는 원저와 평저가 공존한다. 옹관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70~110cm이며, 구경은 40~60cm 정도다(부이 반 리엠, 2013: 152; 부이 반 리엠 외, 2014: 226-229). 이러한 대형 옹관들은 반원추형의 뚜껑과 세트를 이루어 사용된 경우가 많다. 대형 옹관 외에도 소형의 옹관이나 냄비 형태의 일상 용기를 옹관으로 사용한 사례는 사 흰 문화권 전 지역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사 흰 문화기 옹관의 매장 방식은 기본적으로 옹관을 직립, 즉 수직으로 매장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이 눕혀서 넣는 영산강유역과 큰 차이점이다. 사 흰 문화의 옹관은 한 기를 매장하는 단용식이 일반적이지만, 꼬 두아, 그리고 꼬 미에우

옹(Go Mieu Ong) 유적에서는 큰 원통형 옹관 안에 작은 원통형 옹관을 넣은 2중 옹관의 형태도 확인된다(부이 반 리엠 외, 2014: 151; Lam Thi, 2009: 72-73).

옹관의 배치는 단독 매장, 여러 기가 불규칙하게 군집을 이룬 경우, 열을 이루거나 바둑판식으로 배열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44). 또 옹관을 매장하기 전 구연부를 깨뜨리거나 구연부에 작은 구멍을 뚫은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일종의 훼손 행위로서 산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죽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인데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다.

2) 부장품과 시신 처리

옹관 내부에서는 다양한 부장품과 인골이 발견되었다. 부장품의 종류는 토기류, 청동제, 철제 금속기류, 유리나 홍옥수 등으로 제작한 구슬류, 링링오(Ling ling-o) 귀걸이와 쌍두동물형 귀걸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귀걸이는 연옥이나 유리 등으로 제작되었는데, 유리구슬과 함께 해양을 통한 동남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입증하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주경미, 2012: 194-200). 상술한 바와 같이 사 흰 문화의 후기로 갈수록 중국에서 수입한 청동 용기나 동경 등이 위세품으로서 부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부장품의 양적·질적 차이가 선명한 유적 중의 하나가 라이 응이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63기의 옹관묘와 토광묘가 확인되었고, 만 점에 달하는 유리·홍옥 수·연옥제 구슬, 청동제 거울, 방울, 동전, 철제 환두도(環頭刀)와 공구류가 출토되었다. 일반적인 사 흰 문화기 유적에서는 드물게 확인되는 금제 구슬과 금제 귀걸이가 다량 출토된 점이 주목된다. 사자나 새 등 동물 모양으로 조각된 홍옥 수 구슬은 중국 광시성 허푸(合浦)에서 출토되는 것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여서, 서한(西漢) 시기 광시 지방과의 교류를 반영한다(Reinecke, 2009: 36-39; 46-48). 라이 응이 유적의 최대 특징은 부장품의 양과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청동제·철제 금속 유물이나 구슬류 등은 대부분 M19, M37 등 일부 옹관에 집중적으로 부장되었다. 라이 응이 유적은 일반적으로 후기 사 흰 문화의 유적으로 이해되며, 출토된 목탄을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나 한식 동경 등 출토 유물을 이용한 편년 작업을 통해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사이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원전 1세기 이후 중부 베트남에서 사회적 위계 차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Lam Thi, 2009: 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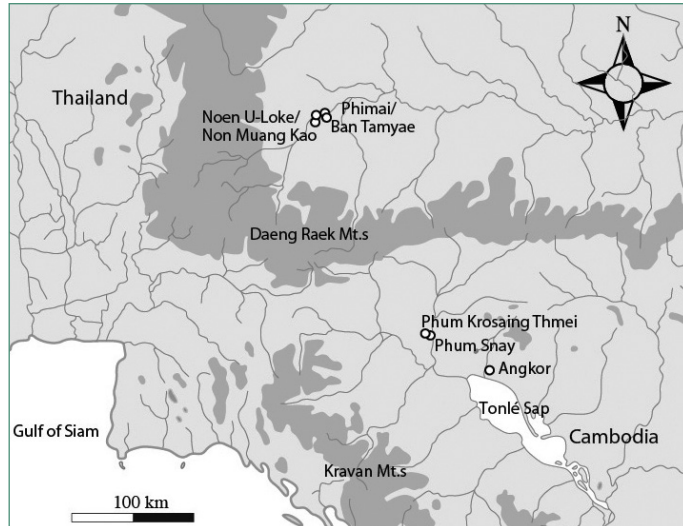
그런데 옹관 내부에서 인골이 출토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옹관 내부에서 재, 완전히 타지 않은 인골이 함께 출토되는 사례가 있어서(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화장한 후 옹관 내부에 뼈를 매납하는 이차장(二次葬)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사 흰 옹관 전부에서 이차장이 진행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많은 경우 화장한 후 뼈를 추려서 매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화장하지 않고 시신을 옹관에 매납하는 한반도 서남부와 일본 규슈 북부의 옹관문화와 다르다.

IV. 캄보디아 북서부 지역

캄보디아 지역의 문명과 고대 국가 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앙코르(Ankor)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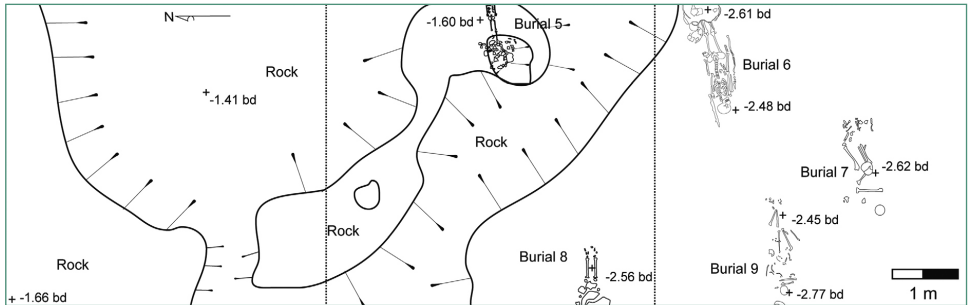
출처: O'Reilly et al.(2006b).

그림 4 캄보디아 북서부 Phum Snay 유적의 위치



국을 대상으로 삼을 뿐, 이에 선행한 철기시대(BCE 500-500 CE)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철기시대 이후부터 사회의 계층화, 고대 국가의 형성과 동남아시아 차원의 교역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대한 연구 없이 진행되는 앙코르 왕국 연구는 한계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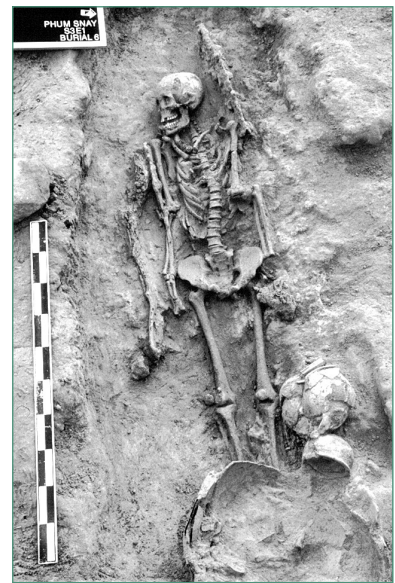
그동안 캄보디아 지역 철기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태국, 베트남 지역의 무덤, 부장품과 개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장된 유리구슬, 토기류를 대상으로 삼아 동남아시아 각 지역 간의 교류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Carter, 2013). 하지만 현재의 캄보디아 영토 내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톤레 샵(Tonlé Sap) 호수 서북부에 위치한 폼 스나이(Phum Snay) 유적을 중심으로, 철기시대 캄보디아 북서부의 묘제와 장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적은 반테아이 메안체이 주(Banteay Meanchey Province)의 프레아 니트 프레이 군(Preah Neat Prey District)에 위치한다. 2000년의 도로 공사 과정에서 무덤이 발견되면서, 2001년과 2003년에 걸쳐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과 호주국립대학 연합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1년에는 철기시대 분묘가 9기 확인되었고, 2003년에는 14기의 분묘가 추가 확인되었다(O'Reilly et al., 2006a: 188-189). 그 후 2007년과 2010년에는 일본 조사단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O'Reilly and Shewan, 2016: 52-53).



출처: O'Reilly et al.(2006b).

그림 5 2001년 발굴조사 구역

2001년과 2003년에 발굴조사된 분묘는 모두 동-서 장축 방향의 토광묘로, 남성, 여성, 영유아가 신전장으로 안치되었다. 부장품은 토기류, 팔찌와 반지, 방울을 포함한 청동계 장신구, 철기류, 구슬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물을 함께 매장한 경우도 확인된다. 일부 부장품은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도 나타난다. 끌, 대도, 단검, 축 등의 철기류는 주로 남성의 무덤에 부장되고, 여성의 무덤에는 준보석류, 방추차 등이 부장되었다(O'Reilly et al., 2006a: 189). 방추차의 부장이 여성 묘를 상징한다는 점은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도 동일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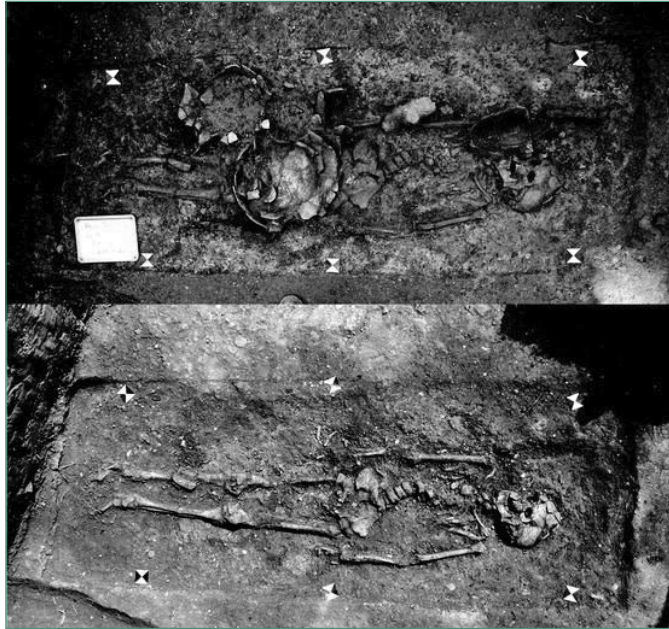
출처: O'Reilly et al.(2006b).

그림 6 6-01 묘

2001년도 발굴 조사는 상대적으로 도굴과 파괴가 덜한 지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9기의 분묘 중 유아의 인골이 출토된 한 기(5-01)를 제외하면 모두 성인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존 상태가 가장 좋은 6호(6-01)에서는 성인 남성의 전신골이 출토되었다. 사망 당시의 나이는 18~22세로 추정되며, 많은 양의 부장품과 함께 매장되었다. 녹색 유리로 만든 귀걸이와 상아·청동계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가슴 부분에서도 유

출처: Miyatsuka and Yasuda (2013).

그림 7 Location B Pit 02
(2007년 조사) 출토 인골과 유물



리구슬이 다량 확인되었다. 시신의 옆에 철제 대도와 무기류가 사슴의 뒷다리와 함께 놓여 있었다. 같은 층위에서 확인된 여성의 무덤(9-01)에서는 방추차, 토기, 청동제 팔찌와 반지, 흑색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었다(O'Reilly et al., 2006b: 213-214).

2003년도 조사에서는 토광묘 14기가 확인되었는데, 6-03호나 14-03호와 같이 무덤의 바닥을 송진 등으로 단단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된다. 2003년 발굴에서는 인골과 함께 청동제 팔찌 등의 장신구, 철기류, 토기류, 유리구슬이 출토되었다. 두 차례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23기의 내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O'Reilly et al., 2006a; 2006b)

폼 스나이 유적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학자들에 의해 다시 발굴 조사되었다(Miyatsuka and Yasuda, 2013). 2007년에 조사한 A 구역에서는 총 6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는데, 철제 대도와 청동 팔찌, 방울 등이 출토되었으며 기원후 4세기 앙코르 보레이(Ankor Borei)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었다(Miyatsuka and Yasuda, 2013: 97-102). B 구역에서는 시신을 굴장(屈葬)하여 매장한 사례도 확인된다. 시신의 무릎을 굽혀 매장하는 전통은 콕 트레아스(Kok

표 2 품 스나이 유적(2001·2003년 조사) 분묘 인골·유물 출토 상황

	유구명	피장자 성별	추정 연령	부장유물
Excavation in 2001	Burial 1-01	남성	중년	없음
	Burial 2-01	여성	25세 이상	없음
	Burial 3-01	미상	성인	없음
	Burial 4-01	미상	성인	없음
	Burial 5-01	미상	2-3세	상아제 팔찌, 청동제 발찌, 토기류, 유리구슬
	Burial 6-01	남성	18-22세	유리제 귀걸이, 유리구슬, 상아제 팔찌, 청동기류, 청동제 반지, 철제 대도, 철제 무기류, 토기류
	Burial 7-01	여성	성인	대형 토기류, 방추차, 청동편
	Burial 8-01	여성	25-30세	청동 팔찌, 토기류
	Burial 9-01	여성	성인	방추차, 토기류, 청동제 반지, 유리구슬
Excavation in 2003	Burial 1-03	여성	중년 이상	청동 유물, 유리구슬
	Burial 2-03	남성	중년 이상	토기류, 홍옥수 구슬, 철제 단검, 창촉, 팔찌, 청동 방울
	Burial 3-03	미상	성인	방추차, 토기류, 철기류, 청동제 팔찌, 반지, 토제 팔찌
	Burial 4-03	미상	성인	없음
	Burial 5-03	남성	성인	토기류, 청동 방울, 청동·철제 팔찌, 청동 반지, 철제 끌, 견장, 화살대, 철제 화살촉, 철제 대도, 기타 철기류
	Burial 6-03	남성	중년	쌀, 토기류, 골제-상아제 팔찌, 철제 대도, 기타 철기류
	Burial 7-03	여성	중년	토기류, 방추차, 청동제 반지, 유리구슬, 철제 축, 유리제 귀걸이, 기타 청동·철기류
	Burial 8-03	미상	미상	토기편
	Burial 9-03	여성	성인	토기류, 유리구슬, 홍옥수 구슬, 청동 용기, 방추차, 청동제 반지, 청동 팔찌, 철기류
	Burial 10-03	미상	미상	철기, 토기류
	Burial 11-03	미상	중년 이상	철제 팔찌, 방추차, 토기류
	Burial 12-03	미상	청소년기	철제 도자
	Burial 13-03	여성	성인	토기류, 방추차, 붉은 안료, 견장, 청동 팔찌, 기타 철기류
	Burial 14-03	여성	성인	토기류, 팔찌, 기타 철기류

Treas) 유적과 앙코르 지역의 프레이 크멩(Prei Khmeng)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신전장에서 굴장으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O'Reilly and Shewan, 2016: 63). D 구역에서는 8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시신은 모두 신전된 상태로 안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두향은 동향이다. D 구역의 분묘에서는 켄디(kendi)라고 하는 주전자 형태의 토기가 출토된 점이 주목되며, 다양한 색상의 유리구슬, 철제 화살촉, 도자, 끈, 청동제 방울, 반지, 팔찌가 출토되었다(O'Reilly and Shewan, 2016: 52-53).

폼 스나이 유적은 목관이나 옹관 등의 장구 없이 토광묘에 시신을 곧바로 매장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인접한 라오스나 베트남 지역과 크게 다른 점이다. 4세기 무렵, 앙코르 보레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출토된 점을 고려하면 고대 왕국 푸난(扶南)의 영향권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푸난의 영토는 베트남 남부, 캄보디아, 말레이반도 등에 걸쳐 넓게 퍼져 있으므로 그 내부에서 다양한 묘제가 공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푸난의 중요 거점인 베트남 남부 옥 에오(Oc Eo) 고 까이 째م(Go Cay Tram) 유적에서는 화장한 후 집골하여, 전용한 토기 내부에 뼈를 매납한 호관묘가 발견되었다(이영철 외, 2019: 69). 따라서 푸난이란 고대 국가 내부의 묘제로 신전장한 토광묘와 화장한 호관묘가 공존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묘제와 장제의 차이는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 내에서의 통일성보다는 그전부터 이어져 오던 지역적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가의 영역을 고려하기 전에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지역권 별 묘제와 장제의 차이를 비교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태국 북동부 지역

태국 북동부의 문 강 유역(Mun Vally)에 분포하는 반 논 왓(Ban Non Wat), 노엔 유-로크(Noen U-Loke)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걸친 분묘 유적으로 소개되었다(Higha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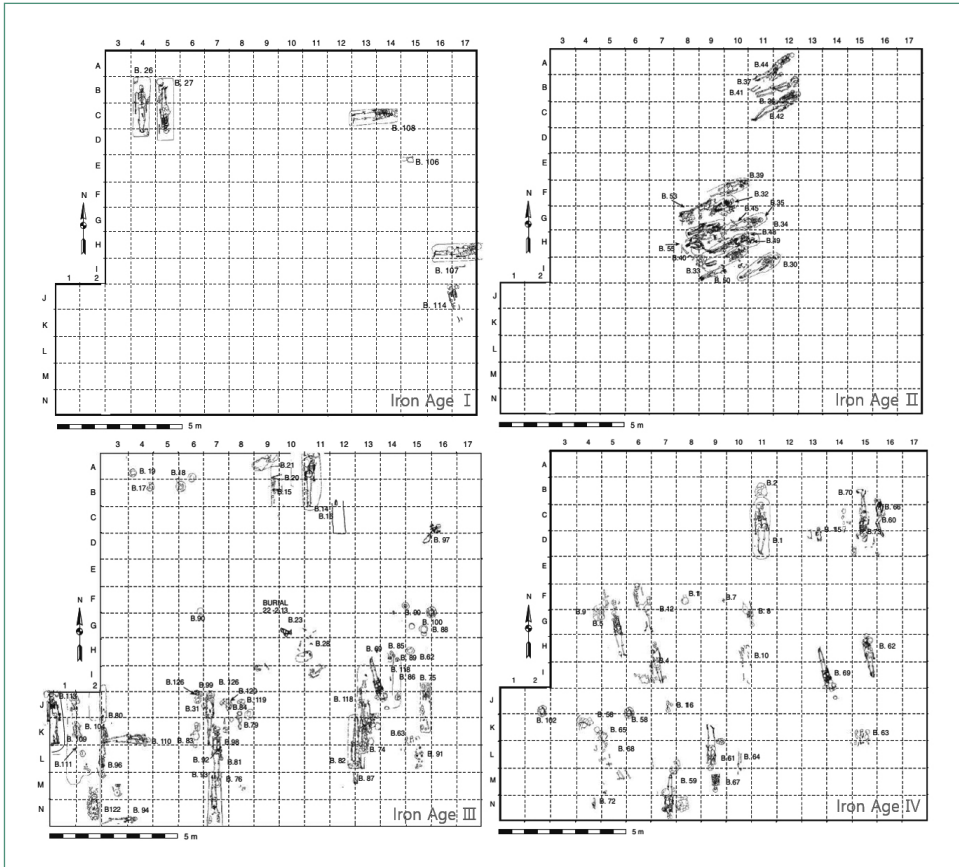
반 논 왓 유적에서는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목관묘가 밀집 분포하는데, 토광 내부에 통나무 목관을 안치한 구조다. 피장자는 남성, 여성, 영유아 모두를 포함

하는데, 신전장 형태로 매장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두향은 북향과 남향 두 방향으로 나뉜다. 철기시대 I기(Iron Age Phase I. 420-100 BC)에는 목관묘가 밀집 분포하다가, 묘역이 점차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개인 무덤이 우세해지는 양상이다. 청동기시대 말기까지는 관 내에 토기(생선 뼈를 담은 경우가 있음), 조개껍질, 방추차 등이 부장되는 반면, 철기시대 이후부터는 귀중한 장신구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철제 팔찌, 유리제 귀걸이, 홍옥수와 연옥 등의 광석으로 만든 구슬이 부장되며, 철제 무기류와 공구류도 확인된다. 청동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청동제 팔찌도 꾸준히 부장되는데, 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Higham, 2016: 290).

반 논 왓 유적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노엔 유-로크 유적 역시 문 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철기시대의 분묘 유적이다. 묘역이 다섯 겹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 점이 특이하다. 세장방형의 토광묘에 신전장 하는 사례가 주류인데, 피장자는 남성, 여성, 어린아이가 모두 포함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뚜껑이 있는 항아리에 매장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시신이 하늘을 본 자세로 매장되었으며, 시신의 팔은 몸통 옆에 놓이거나, 골반 위에 올려져 있으며, 시신을 직물로 싸서 매장한 사례도 있다. 61호 묘에서는 땅을 보고 엎드려 누운 자세로 확인되었는데, 시신의 등에 철제 화살촉이 박힌 상태였다(Higham et al., 2007: 313-317).

철기시대 I기에는 6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철제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하고 매장된 여성 옆에 두 명의 남성이 동물의 송곳니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한 채 매장된 사례가 확인된다.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후 200년까지인 철기시대 II기에는 두 개의 구역에 나뉘어 불규칙한 군집을 이루며 분묘가 분포하는데, 각 군집은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 이른 시기의 그룹은 연옥제 장신구, 유리구슬, 돼지 뼈 등을 부장하였고, 늦은 시기의 그룹은 묘광 내에 높은 열로 탄화된 쌀을 시상(屍床)처럼 채운 양상이 확인된다.

기원후 200년부터 400년까지의 III기에는, 마치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목관묘가 배열된다. 이 시기는 집단 내의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는데, 부장품의 양상에서도 그러한 점이 반영된다. 군집 내에서 탁월한 부장품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개인의 무덤이 등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II기의 A 군집의 한 여성은 연옥제 펜던트와 금제·연옥제 구슬로 만든 목걸이, 62개의 청동 반지, 38개의 청동



출처: Higham(2011)에서 수정 후 인용.

그림 8 태국 북동부 Noen U-Loke 철기시대 분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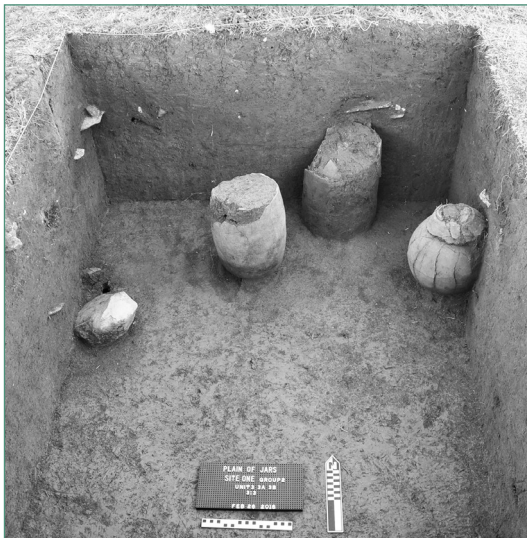
팔찌 등 압도적 수량의 부장품과 함께 매장되었으며, C 군집의 한 남성의 묘에서는 4개의 청동제 허리띠, 124개의 청동 반지, 20개의 청동 팔찌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 정치체 내의 엘리트(elite)의 존재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II기와 마찬가지로 묘광 내에 쌀을 채운 경우가 확인되며, 그 외에도 쌀을 담은 토기나 철제 쟁기날 등 쌀농사와 관련된 유물들이 확인된다. 쌀농사 및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노동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권력을 독점하는 엘리트들이 등장하였을 것이다. 유적을 감싸고 있는 해자가 쌀농사에

필요한 농업 용수를 공급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Higham, 2011; Higham, 2016: 290-295).

VI. 라오스 고지대

라오스지역 철기시대(500 B.C.E.- C.E. 500)의 묘제와 장제에 대한 연구는 씨앵쿠앙 주(Xiengkhuang Province)의 고산 지대에 광범위하게 위치하는 돌항아리(석제 용관 혹은 용형 석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항아리 평원(Plain of Jars)’이라고 명명되어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일련의 유적군은 거석 돌항아리와 원반(disc), 채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O'Reilly et al., 2018). 90군데 이상의 유적에서, 2,000기가 넘는 돌항아리와 원반이 발견되었는데, 항아리와 원반 제작에는 사암, 각력암, 역암 등 다양한 석재가 활용되었다. 인근에서 석재를 채취한 채석장 유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 앙(Ban Ang)에 위치한 Site1로, 300기가 넘는 돌항아리가 확인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최초로 이 유적을 조사했던 마들렌 콜라니(M.



출처: O'Reilly et al.(2019).

그림 9 반 앙 유적 출토 토제 용관묘

Colani)는 인골과 유리·홍옥수 구슬, 토기편, 방추차, 토제 귀걸이, 청동·철기류와 마제석기 등을 수습하였다. 돌항아리 내부에서 화장된 인골과 유리구슬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돌항아리의 용도는 화장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관으로 판명되었다(O'Reilly et al., 2019: 973). 최근 라오스-호주 연합팀이 추진한 2016년도 발굴 조사를 통해 이 유적의 돌항아리들이 매장용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시신 처리 방법에서는 일차장과 이차장의 사례가 모두 확인되었으며, 그중에는 토제 옹관에 이차장한 사례도 있다. 인골과 함께 토기편, 방추차, 유리와 홍옥수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O'Reilly et al., 2019: 975-982).

라오스 고지대 항아리 평원의 석제 항아리들은 항아리의 형태, 항아리를 직치(直置)하는 방식, 그리고 인골을 화장하여 이차장하였다는 점에서, 베트남 중부 연안 사 흰 문화의 확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Higham, 2002: 183-184). 이러한 돌항아리들이 고지대의 산악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소금 교역 등을 목적으로 고산 지대와 연안의 사 흰 문화권이 교섭하면서 묘제와 장제의 핵심 원리를 공유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Higham, 1989: 228-230).

라오스 지역 돌항아리 유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우선적으로 돌항아리와 토제 옹관의 상호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양자의 관계가 시간성이나 계층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분담(1차장과 2차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규명하여야 한다. 그다음은 구슬과 토기류에서 보이는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네트워크를 확인하여 태국 지역 옹관묘와의 계승성, 베트남 지역 사 흰 문화와의 상호 관련성을 해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묘제와 장제에 대한 전체적인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VII. 맺음말

이상 개괄적으로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철기시대-고대 초기 묘제와 장제를 정리해보았다. 지역적으로 베트남 북부(동 손 문화)와 중부(사 흰 문화), 캄보디아 북서부와 태국 북동부, 라오스 고지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얀마, 말레이반도 등은 다루지 못하였다.

동남아시아 고고학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국내 현실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모두 국외에서 발굴, 생산되었다는 점, 외국인 연구자들의 조사와 연구도 연구자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는 처음부터 많은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다. 부족한 정보나마 종합한 결과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철기시대 및 고대 국가 단계의 묘제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고대 국가가 형성된 후에도 국가 단위 내부에서 지역 전통에 따른 변이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묘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당연한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한국고고학에서도 하나의 고대 국가 내에 공존하는 다양한 묘제에 대한 열린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며, 영산강유역 묘제의 다양성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교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토광묘나 목관묘가 우세하지만 라오스와 사 흰 문화권에서 돌항아리, 옹관을 사용하는 점은 분명히 특징적이다. 유소아용이 아니라 성인용으로 돌이나 토제 항아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국 일부 지역, 한반도 서남부, 일본 규슈 북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옹관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인식이 초보적 수준의 전파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쌀농사를 생업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공통점을 감안할 때, 비록 묘제는 상이하더라도 장제 및 내세관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자가 땅에 묻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는 쌀농사의 사이클에 친숙한 농경인들에게는 시신을 잘 매장하면 언젠가는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것이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자의 부활까지는 시신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돌이나 토제 항아리가 사용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화장을 치른 경우도 많고 이차장의 흔적도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치 않다. 앞으로의 장기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넷째, 묘제와 장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리, 홍옥수 구슬이 널리 유통된 사실은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여러 정치체 사이에 원거리 교역 네트워크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동 손 문화의 동고, 사 흰 문화의 장신구도 광범위한 교역망을 보여 주지만 훨씬 넓은 범위로 유통된 것이 유리와 홍옥수다.

양자의 유통은 한반도와 일본열도까지 미친다. 이 과정에서 영산강유역의 정치체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도 앞으로의 연구 주제다.

이상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 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역시 심화된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료 소개와 추론에 머문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 점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사 환 용관과 영산강유역 용관의 단순 비교작업 단계를 벗어나서, 율리와 홍옥수가 유통되던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 속에서 영산강유역의 고대문화를 이해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기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고대 해상교역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투고일: 2020년 6월 15일 | 심사일: 2020년 7월 11일 | 게재확정일: 2020년 7월 27일

참고문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베트남의 용관묘』.
- 권오영. 2019.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 국가』. 세창출판사.
- 부이 반 리엠 저. 보람수엔 역. 2013. “베트남 싸 후인 용관문화의 연구현황 및 과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편. 『대형용관 생산과 유통 연구의 현황과 과제』, 135-157.
- 부이 반 리엠·황 튀 꾸인. 2014. “베트남 용관의 면모: 발전과정 및 분포지역 연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편. 『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류와 연대관』, 207-234.
- 이영철·이혜연·이정현. 2019. “베트남 옥 에오(Oc Eo) 고 까이 째(Go Cay Tram) 유적.” 『백제의 대외교섭과 베트남 옥 에오 문화』. 한성백제박물관 2019 겨울 특별전 연계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6-75.
- 주경미. 2012.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 『미술사논단』 34호, 187-214.
- 최미숙. 2020. “베트남 용관묘의 장송의례 검토.” 『호남고고학보』 64호, 116-149.
- Carter, A. K. 2013. “Trade, Exchange and Sociopolitical Development in Iron Age

- (500 BC~AD 500) Mainland Southeast Asia: An Examination of Stone and Glass Beads from Cambodia and Thailand.” Ph.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Higham, C. 1989. *The Archaeology of Mainland Southeast Asia: From 10,000 B.C. to the Fall of Angk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Early Cultures of Mainland Southeast Asia*. Chicago: Art Media Resources.
- _____. 2011. “The Iron Age of The Mun Valley, Thailand.” *The Antiquaries Journal* 91: 101-144.
- _____. 2016. “Death and Mortuary Rituals in Mainland Southeast Asia: From Hunter-Gatherers to the God Kings of Angkor.” In C. Renfrew, M. J. Boyd, and I. Morley, eds. *Death Rituals, Social Order and the Archaeology of Immortality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gham, C., A. Kijngam, and S. Talbot, eds. 2007. *The Excavation of Noen U-Loke and Non Muang Kao: The Origins of The Civilization Of Angkor vol.II*. Bangkok: The Thai Fine Arts Department.
- Lam Thi My Dzung. 2009. “Sa Huynh Regional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s in the Thu Bon Valley, Quang Nam Province, Central Vietnam.”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9, 68-75.
- _____. 2011. “Central Vietnam during the Period from 500 BCE to CE 500.” In P. Manguin, A. Mani, and G. Wade, eds. *Early Interactions Between South And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Liem, B. V. 2005. “A Study Of Boat-Shaped Coffins From Dongson Sites In Vietnam.”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5, 117-119.
- Miyatsuka, Yoshihito and Yoshinori Yasuda. 2013. “Survey and Excavation of Phum Snay in 2007-2010.” In Yoshihori Yasuda, ed. *Water Civilization: From Yangtze to Khmer Civilizations*. Tokyo: Springer.
- O’Reilly, D., A. Driesch, and V. Voeun. 2006a. “Archaeology and Archaeozoology of Phum Snay a Late Prehistoric Cemetery in Northwestern Cambodia.” *Asian Perspectives* 45-2, 199-211.
- O’Reilly, D. and Louise Shewan. 2016. “Prehistoric Mortuary Traditions in Cambodia.” In M. Oxenham and H. Buckley, eds. *The Routledge Handbook*

- of Bioarchaeology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London: Routledge.
- O'Reilly, D. et al. 2018. "Megalithic Jar Sites of Laos: A Comprehensive Overview and New Discoveries." *Journal of Indo-Pacific Archaeology* 42, 1-31.
- _____. 2019. "Excavating among the Megaliths: Recent Research at the 'Plain of Jars' Site 1 in Laos." *Antiquity*, 970-989.
- O'Reilly, D., K. Dommet, and P. Sytha. 2006b. "The Excavation of a Late Prehistoric Cemetery in Northwest Cambodia." *Udaya: Journal of Khmer Studies* 7, 207-222.
- Reinecke, A. 2009. "Early Cultures (First Millenium B.C. to Second Century A.D.)." In N. Tingley, ed. *Arts of Ancient Viet 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 Huston: Asia Society, The Museum of Fine Arts.
- Solheim, W. G. 1959. "Introduction to Sa-huynh." *Asian Perspectives* 3(2), 97-108.
- Vietnam National Museum of History(<http://baotanglichsu.vn/en/Articles/3188/16726/dong-son-culture-in-vietnam-90-years-of-discovery-and-study-part-2.html>)(검색일: 2020. 6. 14).
- Wei Weiyang and Shiung Chung-Ching. 2014. "Viet Khe Burial 2: Identifying the Exotic Bronze Wares and Assessing Cultural Contact Between the Dong Song and Yue Cultures." *Asian Archaeology* 2, 77-92.
- Yamagata, Mariko. 2006. "Inland Sa Huynh Culture along the Thu Bon River Valley in Central Vietnam." In I. C. Glover, V. C. Pigott, and E. A. Vacus, eds. *Uncovering Southeast Asia's Past*. Singapore: NUS Press.
- Yamagata, Mariko and Hirofumi Matsumura. 2017. "Austronesia Migration to Central Vietnam: Crossing over the Iron Age Southeast Asian Sea." In P. J. Piper, H. Matsumura, and D. Bulbeck, eds. *New Perspectives in Southeast Asian and Pacific Prehistory*. Canberra: ANU Press.

Abstract

Ancient Burials and Funerary Practices of Inland Southeast Asia

Kwon Oh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Young 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a Huynh culture of central Vietnam has garnered the interest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community due to its use of large jars (produced specifically as coffins) in funerary practice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active attempts to compare the Sa Huynh jar coffins with the large jar coffins of the Yeongsan River region of southern Korea. Although these attempts at comparison are academically meaningful, they are lacking in terms of a wider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burials and funerary practices, contemporaneous to the Sa Huynh culture, that were used throughout Southeast Asia at the time.

The Dong Son culture, which was spread out over northern Vietnam and southern China, is characterized by distinctive burials and funerary practices that are different from, but nevertheless contain traces of interaction with, the Sa Huynh culture. In the Laos highlands, stone jars were used as coffins, which can be regarded as illustrating a continuation of the same burial concept, albeit expressed through a different medium (i.e., stone). On the other hand, simple pit burials or wooden coffin burials were mainly used in the regions of Thailand and Cambodia, with the use of jar coffins limited only to infant and child burials.

A more developed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kinds of burials and funerary practices used throughout Southeast Asia will provide the context

in which the jar coffin burial culture of the Yeongsan River region can be better understood in the future. Such an understanding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long -distance trade network (involving the movement of carnelian and glass beads), which linked Southeast and Northeast Asia.

Keywords | Dong Son Culture, Sa Huynh Culture, Jar Coffin, Wooden Coffin, Stone Jar, Carnelian, Glass Bead